

지방공무원 숙원 해결 특별한 전북교육 실현

전북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와 노사협의회 체결식
전직급 공로연수 기간 연장·연가보상비 지급 일수 확대 등 합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달 29일 5층 회의실에서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와 2023년 노사협의회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양 기관은 2022년 12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사전 절차와 부사별 실무협의를 거쳐 48건의 요구안 중 77%인 30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전직급 공로연수 기간 연장, 연가보상비 지급 일수 확대, 맞춤형복지포인트 인상, 당직근무 수당 인상, 전산직공무원 위험근무수당 확대, 운전직공무원 현장학습 지원 시 자체 감액 없이 여비 지급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추후 노사협의회 결과를 각 기관(학교)에 안내하고, 합의 내용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연대 강주용 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5층 회의실에서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와 2023년 노사협의회 체결식을 가졌다.

부장은 "이번 노사협의회를 통해 지방공무원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면서 "2013년 노사협의회 시작 이래 처음으로 기관장이 체결식에 참여함으로써 협의의 위상이 높아졌고, 또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2023년 노사협의회가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이를 통해 하나 되는 교육 현장을 만들고, 더 특별한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학교장 대상 식중독 예방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학교(원)장 대상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립단설유치원장, 초·중·고 및 특수학교장 8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사립유치원 급식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는 급식 위생관리 중요성에 대한 관리자 이해를 높이고, 식중독 대처능력 향상으로 급식 운영 관리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황선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이 강사로 참여해 '식중독 예방관리 방안 및 대응요령'을 주제로 △식중독 예방법 △식중독 발생 시 행동요령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급식 위생·안전관리 기준 △식중독 위생사고 사례 △위생관리 컨설팅 사례 등을 안내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문화회관, 2024년 북스타트 사업 새롭게 추진

전주교육문화회관(관장 이현규)은 영유아에게 성장 단계별 책꾸러미를 선물하는 2024년 북스타트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북스타트코리아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하기 연령에 맞는 그림책이 든 가방을 선물하는 지역 사회 문화운동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르면 전주교육문화회관은 그림책을 매개로 부모·자녀 간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아이들이 책을 사랑하는 평생독자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올해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책임은사회문화재단(북스타트코리아)로부터 아기들을 위한 책 7종을 추천받았으며, 이 중 전주교육문화회관 사서가 6종을 추천했다. 최종 추천된 그림책 후보는 △나카서 놀래(한울림어린이) △출렁이(소울나무) △오늘 뭐 했어(한림출판사) △눈사람 마을의 아이스크림(달리) △곰 할머니의 잠 가게(달리) △내 노란 신발(그린북) 등이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전주시인 △생후 0개월~18개월(1단계: 북스타트 베이비) △19개월~35개월(2단계: 북스타트 플러스) △36개월~취학전(3단계: 북스타트 보물상자) 영유아로, 단계별 연령에 적합한 그림책 2권, 가이드북, 예코백, 단계별 선물로 구성된 책꾸러미 500개를 4월부터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5층 회의실에서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북지부와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 '맞손' 전북자치도교육청-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5층 회의실에서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북지부와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서거석 교육감과 송양수 전북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등하굣길 통학로 교통안전지도를 강화하고, 또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강화 △교통안전 캠페인 지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노력 등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송양수 지부장은 "아이들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더욱 강화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제로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함께하면 더 특별한 공감'

전북자치도교육청 교육연수원 공개강좌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주제로 특강 가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연수원(원장 문병기)은 지난달 29일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이란?'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교육연수원에서 3월에서 12월까지 진행하는 '함께하면 더 특별한 공감' 공개강좌의 첫 번째 시간이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하회주(신구중학교) 교장은 국제 바칼로레아(이하 IB) 교육의 기본 개념과 교육목표, 추구하는 학생상에 대해 설명하고, 이 교육 과정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 되는 이유를 강조했다. 또한 21세기 국제화·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역량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IB 프로그램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교육 현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편 교육연수원의 '함께하면 더 특별한 공감' 공개강좌는 △4월 30일 '챗GPT 이후의 인류' △5월 10일 '정 책보고서 잘 쓰는 법' △5월 30일 '살면서 공부할 필요 이유' 순으로 이어진다. /장은성 기자



지난달 2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유학생 교육기부자를 모집, 이번에 선정된 21명을 대상으로 사전 적응 연수를 진행했다.

유학생 교육기부단, 이달부터 운영

전북자치도교육청, 선정대상 21명 사전 적응 연수 "다문화 이해 향상·다양성 존중 세계시민 성장 기회" 유학생들은 학교 현황, 학생 특징 안내 등 유의점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유학생기부단은 이달부터 전주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찾아 자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자연환경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아르메니아에서 온 타데버시안 리마(24)씨는 중등과 타기 문화권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음식이나 지명을 맞추는 게임을 준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유학생 교육기부단을 통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이탈리아 파르마대학, 전주대 방문

학생 유럽 진출 발판 마련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 관계자가 지난달 28일 전주대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전주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2023년 5월 체결한 학생 및 교수 간의 교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파르마대학 식품경제학과 마리오 베네치아니 교수와 식품과학학과 다비드 비르빈티 교수가 직접 전주대를 찾았다. 이번 방문에서 파르마대학은 EU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블렌디드 프로젝트에 전주대학교를 초청했다. 이탈리아 파르마대학은 11세기에 설립된 유서 깊은 대학으로, 한국에서는 서울에 소재한 대학 한 곳과 교류를 진행 중이다. 마리오 베네치아니 교수는 "세부 협력을 위해 두 번째로 전주대학교를 방문하게 됐다"며 "지역의 문화를 토대로 다양한 장점이 있는 대학으로 파르마대학은 중요한 파트너로 전주대학교와 함께 성장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심영국 국제교류원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전주대학교는 현재 영어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고 있어 파르마대학의 학생들이 전주대학교에 온다면 언어의 장벽 없이 진정한 한국을 체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장은성 기자

'글로벌 산학협력·창업 활성화'

미국 KIC DC, 우석대와 협약 수소·바이오헬스 등 중심 스타트업 글로벌 창업 지원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달 28일 오후 미국 한국혁신센터 워싱턴 D.C.(이하 KIC DC)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산학협력에 관한 기술 및 경영 자문 △공공연구 및 기술사업화 진행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글로벌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창업기업에 대한 미국 현지 파트너 및 투자자 발굴 △보유 콘텐츠의 상호 활용 및 국내외 협력 네트워킹 구축 등이다. 특히 KIC DC는 우석대학교의 특성화 분야인 '수소·모빌리티'와 '바이오 헬스' 등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의 글로벌 창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희석 산학협력단장은 "KIC DC와의 교류를 통해 대학의 특성화 연구 분야에 대한 기술사업화를 비롯해 협력을 맺고 있는 지역의 우수기업과 역량을 갖춘 국내 혁신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응급처치 실습교육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보다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교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북대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대학본부 로비에서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교내 주요 보직자들과 학생회장 및 학생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시작으로 올해 정기적으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2시간씩 전북대 심천학당에서 안전보건관리부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응급처치 실습교육에서는 대학 각 건물 로비에 비치돼 있는 응급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AED)에 대한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와 실습이 이뤄졌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선정평가 진행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지난달 28~29일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선정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는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전주비전대학교가 보유한 ICC 특화분야 전문인력과 기술을 투입해 참여기업과 공동 결과물을 도출해내고, 기술이전해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 사업화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차년도 사업에서는 '전자기파를 이용한 동물 전자기 치료 장치' 등 10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 및 등록해 산업체로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선정평가는 전문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된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는 올해 9월까지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